



도로 정체·안전 위협하는 ‘드라이브 스루’

일부 매장들 안전시설물 조차 제대로 안갖춰 영업 출퇴근·점심시간대엔 차량 몰려 차도 주차장 방불 운전자들 “매장에서 교통정리 노력도 안해” 분통

차에 탄 채로 상품 주문과 구입이 가능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매장이 제주지역 곳곳에서 영업하면서 보행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량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진입하려면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통과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할 위험이 있고, 안전 시설물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매장도 여럿 있기 때문이다.

6일 낮 12시쯤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음식을 주문하려는 차량이 길을 걷는 사람들 사이로 곡에 운전하듯 오가고 있다. 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는 차량 출입경보장치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차량이 접근해도 경보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입구 한쪽에 설치된 블라드(인도에 자동차가 들어가 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애물)는 찌그러진 채 방치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장을 지나는

시민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해당 매장 앞을 매일 지나간다는 고현주(28·여)씨는 “차가 오는 줄 모르고 보도를 건다 차와 부딪힐 뻔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매장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진입하려 차량들이 줄지어 보도를 통과하지만 보행자와 충돌을 방지할 블라드, 출입경보장치 같은 안전시설물은 없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2018년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드라이브 스루 진입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들어선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이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또 안전시설물을 갖춘 매장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고장난 곳이 많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차량 운전



제주시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진입하기 위해 차량이 도로에 길게 늘어서 있다. 강다혜기자

자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퇴근, 점심 시간마다 몰려드는 차량에 복제통을 이루는 제주시 도남동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는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가져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대기줄을 빠져나가려는 일부 차량들이 급히 차로를 바꿔 끼어드는 경우도 많다고 운전자들은 전했다.

이처럼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부과 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로 한정되다보니 대다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제주 시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 15곳 중 부담금을 내는 곳은 1곳 뿐이다.

강모(38)씨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 들어섰지만,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 매장 부근을 지나갈 때면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매우 불편하다”며 “가뜩이나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누군가 나와서 교통정리 중인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면적이 부담금을 낼 정도는 아니다”며 “지속적인 안전 시설물 점검과 교통안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해외방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제주 국경검역수준 방역체계 가동

현재까지 확진자 7명 확인

해외 방문 이력을 가진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제주도는 입도 관문 최일선인 제주국제공항에서부터 국경 수준의 검역을 실현하기 위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와 다목적 양압 검체 채취 부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첫 항공편이 도착하는 오전 7시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도착하는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6일 0시 이후 모든 국제선에 대해 제주공항 착륙이 금지돼 제주와 해외를 오가는 직항편은 없지만,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방문 이력자가 제주로 오거나 국내선 입·출도가 중 37.5℃ 이상 발열 증상자들은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최소화하고 발 빠른 문진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워크스루 진료소를 통해 총 2461건의 검체 채취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총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한 바 있다.

7명의 확진자들은 모두 해외 방문 이력을 지닌 이들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입도 직후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체 채취 후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무증상을 보인 감염자 5명에 대해 입도 직후 즉시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격리, 병원 이송조치가 이뤄져 지역 내 2차 감염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제주도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제주에 입도하는 해외방문 이력자들이 제주공항 내 워크스루를 거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 폭증 등 검체 채취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제주국제공항에 다목적 양압 검체 채취 부스 2대를 설치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재판부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 요구 거절” 검찰, 성폭행 혐의 40대 무죄 관련 반박… “재판부 잘못”

속보=최근 성폭행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40대 중국인이 무죄 판결로 석방된 사건과 관련(7월 6일자 4면 보도)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유가 검찰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때문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주지방법원 6일 “해당 재판에서 공판검사는 재판부에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면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법원은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 확보를 수 없어 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행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쯤 중국인이 모여 사는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여성 B(44)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조서를 부동의 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면 피해자를 법정에서 출석 시켜 증인신문을 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다시 입국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 들고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 못해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조서와 고소장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서귀포시 9개 시민단체 “우회도로 건설 중단하라”

서귀포시 9개 시민단체는 6일 보도 자료를 내고 “환경을 파괴하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들 단체는 “우회도로 1구간 1.5km는 서흥로에서 시작해 서흥천 위에 다리를 놓고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 녹지를 없애며, 동흥천에 또 다리를 놓아 동흥초등학교 바로 전까지 이른다”며 “이 도로가 서귀포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리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흥천이 흘러내린 천지연과 동흥천이 흘러내린 정방폭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만 제대로 해도 절대로 도로를 만들지 못하리라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회항항공기 엔진점검 6일 제주공항을 떠나 청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592편이 엔진 점검이 발견되면서 출발지인 제주로 회항하자 정비사들이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최저시급 1만원으로…”

전국민중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노동은 “경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영 위기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강조하며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이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중노동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다”며 “최전선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 최저임금제도”라고 강조했다.

강다혜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1,3년생
갑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요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해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예 (조경수)

2~7년생 하갈, 필삭, 세미늘, 금굴,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탱자묘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요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해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번이치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주간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노지감귤: 레양병, 검은점무늬병, 불룩총채벌레 등 병해충 방제
- 레양병: 곽양병 동시 방제 6-7월 구리제+기계유유제 (150-200배)
- ※ 코사이드 등 일부 구리제 살포 시 탄산칼슘 200배 혼용 살포
- 검은점무늬병: 죽은 가지 제거 및 방제약 살포
- ※ 장마기(6월 하순-7월 상순) 방제가 매우 중요 비가 오기 전 살포
- 불룩총채벌레: 끈끈이 트랩 설치 발생 여부 예찰 후 방제시기 결정
- 만감류: 총채벌레, 곽양병 예찰 후 발생조기 방제
- 여름철 하우스 내 온도 상승 최대한 억제, 주야간 자연온도 관리
- 물관리: 3-5일 간격으로 20톤/10a
- 키위: 점무늬병, 세균성점무늬병, 여름계양병 등 병해충 방제
- 만개 후 90일 이내 영양제(칼슘) 살포
- 장마기 강우 대비 및 환기 철저 곰팡이병 발생 억제
- 태풍 대비 노지재배는 방풍수 등 정비, 덕 시설 고장, 배수로 정비 시설 재배는 와이어, 나사 등 고장, 환풍기, 개폐기 등 작동 점검
- 단옥수수: 적기수확
- 태풍재배는 암꽃이 발생하고 25일 경 수확이 마를 때 오전 중 수확
- 단호박: 적기수확
- 저장력을 높이기 위해 비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장소에서 예조
- 노지수박: 비대관리, 적기수확, 명굴마름병 등 병해충 방제
- 메밀: 알곡이 75-80% 검게 되었을 때 적기 수확
- 너무 이른면 미숙림과 수분함량이 많아 건조에 어려움
- 기장: 알곡이 50% 이상 익었을 때 적기 수확
- 너무 이른면 알곡이 머물지 않아 쪽집이 비율이 높고, 늦으면 수확 시 탈립되어 손실이 많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760-7561)